

미세먼지·폭염·녹조 끝없는 공습 '숨막힌 한해'

되돌아본 2013 ④ 환경재앙 속수무책

올 한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폭우와 폭염, 녹조와 미세먼지까지 잇따른 환경재앙으로 피해를 겪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최근 갑작스럽게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중금속을 함유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광주·전남지역에도 영향을 미쳤고 최고 200 μ g/m에 육박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세 먼지는 인체에 유입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폐 질환자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탓에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정부 대응도 미흡했다. 환경과학원은 광주·전남 지역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실시간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후 하루 두 차례씩 미세먼지를 예보하고 미세먼지 예보 지역에 광주 등을 내년 초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지만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초미세먼지'의 예보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폐 질환자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 온난화 영향 가축 폐사·양식장 등 피해 속출

중금속 함유 중국발 미세먼지 인체에 심각한 영향

이외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무더위, 폭우도 기승을 부렸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올 여름 '불볕더위'와 '열대야'로 몸살을 앓았다. 올 여름철(6월1일~8월10일) 평균 기온은 광주 26.1도, 목포 24.9도, 여수 24.3도 등을 기록했다.

지난 30년 새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199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완도(25.4도)와 장흥(25.2도), 고흥(24.8도)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폭염은 광주·전남을 달궜다.

폭염으로 전남 27개 농가의 닭, 오리 등 가축 7만여 마리가 폐사하는가 하면, 여름철 띄약벌에서 고추, 깨 등을 수확하던 노인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보건 당국이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무더위로 인한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블랙아웃'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오후 2시~5시까지 구청, 시청 등 공

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번 여름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도 광주가 21일, 목포 28.4일 등 평균 20일이 넘어 '잠 못 드는 밤'도 적지 않았다.

영산강을 비롯, 4대강에는 녹조가 창궐하면서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 및 공사 무용론도 비등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김 양식장이 피해를 입는가 하면, 해파리떼도 기승을 부리면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끝>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김희중 대주교 "박대통령 포용력 절실"

"국민통합 미흡...균형발전·인사 탕평 써야"

성탄절 기자간담회

전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사진) 대주교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51%의 대통령이 아니라 100%의 대통령으로 여야를 아우르는 포용력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대주교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날 오후 광주 평화방송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개인적으로) 국민통합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인사 탕평책을 썼으면 한다"고 밝혔다.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선 "국민으로서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지대하게 관심을 갖지 않고도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

김 대주교는 "정치와 종교의 역할, 기능은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며 "성직자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랫동안 성찰하고 염려해서 하는 제언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주교는 이날 발표한 성탄메시지에서도 "이 세상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지만 평화를 찾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만 커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며 "공정한 분배야말로 이 시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장들에게 나눔의 마음이 커지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민기자 kki@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내년 1월 14일까지 재학생·입학예정자 대상

한국장학재단은 19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재학생과 대학 입학 예정자라면 누구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분위 확인, 성적 조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에 장학금 선별이 완료된다.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내

년 3월 3~21일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의 세부시행계획은 2014학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최종 확정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연할뉴스

서재홍 조선대총장 "임시이사 체제 안돼"

이사회·대학구성원에 호소문

조선대 이사회가 신임 이사 선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재홍 조선대총장이 임시이사 체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서재홍 총장은 18일 '조선대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조선대 정

관과 교육부 공문에 따라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 8명 이사 전원을 선임해, 제2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조선대는 비정상적인 이사회로 인해 지역 사회의 걱정을 넘어 붕괴 터지듯 쏟아지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일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한창 뛰고 다니는 시기"라며 "이런 때에 학교가 안정되지 않고 기업과 사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면 우수학생 유치와 학생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지 1년이 됐지만 차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 이사 대부분이 연임하려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6분
해질 17시 23분
달출 19시 13분
달정 08시 36분

손발 공공
기온 큰 폭으로 떨어지고 찬바람 불겠다.

광주	눈	-1/2℃
목포	눈	-1/2℃
여수	구름때름	1/3℃
나주	눈	-1/2℃
완도	눈	1/3℃
구례	눈	-1/2℃
강진	눈	-1/2℃
해남	눈	-1/2℃
장흥	눈	-1/3℃
순천	눈	1/3℃
영광	눈	-2/1℃
전주	눈	0/2℃
군산	눈	-1/1℃
남원	눈	-1/0℃
혁신도	눈	-2/0℃
혁신도	눈	0/2℃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주간날씨
20(금) -2/4
21(토) -2/5
22(일) -3/6
23(월) -1/7
24(화) -1/8
25(수) 1/9

광주 남구 공무원노조 '강성노조'로 바뀌나

전공노 가입 투표 82% 찬성

광주시 남구공무원노동조합이 강성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한다.

남구공무원노조가 친정부서형인 한 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하게 되면, 광주 공무원노조 5개 구청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게 된다.

남구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 전국 공무원노조 가입 총투표에서 조합원 573명 중 509명(88.8%)이 투표에 참여해 471명(82.7%)의 찬성으로 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반대는 87명(17.2%), 무효는 1명(0.1%)이었다. 노동법상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남구공무원노조는 이달 안에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희화화하는 이른바 '귀태가' 논란과 을지훈련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정부 비판적인 활동을 해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황칠나라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D&P황칠365 신상품

황칠시크릿 진액

현역력 이보다더 좋을 순 없는데...

용봉점 여수점 쌍촌점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사진

쌍촌점 용봉점 여수점 화순점

광주 서구 쌍촌동 948-33 062-375-8233
광주 북구 용봉동 740-1 062-418-8788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72 미평동 1층 061-652-7177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42-8 061-375-7188

www.황칠나라.kr